

# 중·고등학생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및 교육 요구 분석

오희진 · 곽아림<sup>1</sup> · 이민주<sup>1</sup> · 이은정<sup>1</sup> · 김지하<sup>1</sup> · 이문수<sup>1</sup> · 전영호<sup>1</sup> · 김경임<sup>1,2\*</sup>  
부산대학교 · <sup>1</sup>고려대학교 · <sup>2</sup>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Knowledge, Attitudes, Practices and Education Needs Toward Safe Medication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eejin Oh · Arim Kwak<sup>1</sup> · Minju Lee<sup>1</sup> · Eunjung Lee<sup>1</sup> · Jiha Kim<sup>1</sup> ·  
Moon-Soo Lee<sup>1</sup> · Young Ho Jeon<sup>1</sup> · Kyungim Kim<sup>1,2\*</sup>  
Pusan National University · <sup>1</sup>Korea University · <sup>2</sup>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education about safe medication use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medication use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by evaluating their knowledge, attitudes, practices and education needs toward safe medication us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ver the past year, 92.0% and 57.5% of respondents used over-the counter drugs and prescription drugs at least one time, respectively. Regarding the experience of education on safe medication use, 34.0% of respondents have been educated more than once since their admission to middle school. The overall mean score of knowledge · attitude · practice (KAP) toward safe medication use was 3.79, but the mean score of practice scope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others. Moreo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KAP scores for safe medication use by school grade or educational experience.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further studies regarding 1) expansion and differentiation of education content on safe medication use, 2) transition of education method to outcome-based education approach, and 3) inclusion of education on safe medication use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s.

**keywords**: medication use, education, adolescents, knowledge, attitudes, practices, needs

### I. 서 론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나 규범에 따라 다르나,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시기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 정신적 · 지적 · 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매우 중요한 발달연령으로서, 일생에 거쳐 필요한 올바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습관화하는 시기이다(MEST, 2009). 청소년기에 정립된 의약품 안전사용 등 건강에 대

\*교신저자 : 김경임 (kim\_ki@korea.ac.kr)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비(17172MFDS178, NRF-2019R1A6A1A03031807)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24일 접수, 2019년 12월 12일 수정원고 접수, 2019년 12월 12일 채택

<http://dx.doi.org/10.21796/jse.2019.43.3.400>

한 태도와 행동 습관은 청소년기의 건강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평생 건강과 지역사회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Mulye *et al.*, 2009).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는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의약품에 노출되고 익숙해진다(Lee *et al.*, 2001). 국내의 경우 일반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청소년의 의약품 접근이 쉬워졌다. 반면 청소년기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오남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약물중독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물 의존성이 높으며 남용 상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Kim & Kim, 2002). 실제로 대전·충남 소비자연맹이 지역 거주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복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고등학생의 약 42%가 일주일에 의약품을 1~2회 복용한다고 답해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의 58%는 의약품 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과다 복용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Yoon, 2012). 이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습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The National Work Group on Literacy and Health, 1998).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태도와 가치관 및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은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또래 압력(Peer pressure) 등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므로 안전한 의약품 사

용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할 수 있다(Chung, 2007; Choi *et al.*, 2012).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판단 외에도, 사용자의 올바른 지식과 태도 및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들은 교육 대상자가 의약품의 구입, 복용, 보관 및 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지식 제공의 차원이 아닌, 교육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건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건강 관련 교육의 대상자들은 의학지식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가장 흥미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 2011).

청소년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보건교과를 채택하여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MEST, 2009), 이 시간을 통해 의약품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재량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 주제보다 음주, 흡연 또는 일부 향정신성 약물 등의 지식 전달에 비중을 두고 있어, 청소년기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 태도와 행동 습관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중학교 과학의 '자극과 반응' 단원 및 생명과학 1의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탐구활동을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으나(MOE, 2015), 신경계, 호르몬, 병원체, 질병, 감염과 예방 등에 관해 통합적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과학 시간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체계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원칙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

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행동(Practice)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약품 관련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설문대상과 실시

이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와 보건교사 모임의 협조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 대상) 5개교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였다. 설문은 최종 225명의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한달 간 시행되었고, 1회에 한하여 자기보고 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 2. 설문도구

설문지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약품 사용 현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 경험과 교육에 대한 요구,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 4개 영역의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문항의 성격에 따라 “예”, “아니오” 또는 횡수 등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내용은 약학 전공 교수 3인이 청소년기 의약품 사용 특징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의약품 교육 교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고(Kim *et al.*, 2014; Atsbeha & Suleyma, 2008; Jha, Bajracharya & Shankar, 2013),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 1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

을 받아 완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은 참여자의 성별, 나이, 학년, 흡연 및 음주 경험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약품 사용 현황 영역은 일반의약품 구입 경험과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종류 및 구입 빈도를 묻는 3개 문항과 전문의약품 복용 경험과 종류 및 이유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 경험과 요구 영역에서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그 만족도 및 희망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평가 영역은 의약품의 구입, 복용, 보관 및 폐기의 전반적 의약품 사용 과정을 다루는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약품 안전 사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올바른 의약품의 구입, 복용, 보관 및 폐기 방법에 대한 기본지식 내용을 포함하였다. 의약품 안전사용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 역시 올바른 의약품의 구입, 복용, 보관 및 폐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었다. 태도 평가 질문은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질문하였고, 행동 평가 질문은 평소 습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문항을 ‘나는 ~ 한다’ 라고 표현하였다.

### 3. 자료분석

연구 참여 희망자 225명 중 전체 문항의 50%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25부를 제외하고 200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약품 사용 현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 경험 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평가 영역은 각 영역별 및 전체 평균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일부 부정 기술된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참여자 특성에 따른 지식·태도·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식·태도·행동 수준 사이의 관련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양측검정으로 수행하였으며,  $p < 0.05$ 를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참여자 기본 특성

설문 분석에 활용된 참여대상자의 수는 200명으로 남학생이 49.0%, 여학생이 51.0%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는 각각 118명(59.0%)과 82명(41.0%)이었다(Table 1). 전체 학생 중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각각 6.5% (13명)와 21.5% (43명)이었다. 중학교 입학 이후 의약품 안전 사용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0% (68명)였으며, 이 중 약 47% (32명)는 3회 이상의 교육 수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교육 수혜 경험이 전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각 21.5% (43명)와 44.5% (59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재량적 선택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교육의 불균형이 있음을 시사한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중 92%가 최근 1년 내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빈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종류는 연고 등 외용제가 가장 많았으며(79.0%), 그 다음으로 해열감기약(76.0%), 소화제(60.5%), 근육통완화약(38.5%) 순이었다. 일반의약품 사용빈도는 연고 등 외용약의 경우 주 1회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25.9%), 이 외 해열감기약, 근육통완화약, 소화제는 3개월 내지 6개월에 1회 사용이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내 전문의 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5%(115명)였다. 약을 복용한 이유로는 감기몸살(42.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비인후과 질환(12.2%), 피부질환(12.2%), 소화기질환(7.8%), 근골격계질환(4.3%) 순이었다. 반면 약을 복용한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항목	변수	전체, N (%)	중학생, n (%)	고등학생, n (%)
성별	남자	98 ( 49.0)	56 ( 47.5)	42 ( 51.2)
	여자	102 ( 51.0)	62 ( 52.5)	40 ( 48.8)
학제	중학교	118 ( 59.0)	118 (100.0)	-
	고등학교	82 ( 41.0)	-	82 (100.0)
흡연 경험	있음	13 ( 6.5)	6 ( 5.1)	7 ( 8.5)
	없음	187 ( 93.5)	112 ( 94.9)	75 ( 91.5)
음주 경험	있음	43 ( 21.5)	18 ( 15.3)	25 ( 30.5)
	없음	157 ( 78.5)	100 ( 84.7)	57 ( 69.5)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수혜 경험	1회	11 ( 5.5)	7 ( 5.9)	4 ( 4.9)
	2회	25 ( 12.5)	19 ( 16.1)	6 ( 7.3)
	3회 이상	32 ( 16.0)	20 ( 16.9)	12 ( 14.6)
	전혀 없음	43 ( 21.5)	19 ( 16.1)	24 ( 29.3)
	기억나지 않음	59 ( 44.5)	53 ( 44.9)	36 ( 43.9)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 2.67)	2 ( 1.7)	0 ( 0.0)
	다소 만족하지 않음	4 ( 5.33)	3 ( 2.5)	1 ( 1.2)
	약간 만족함	17 ( 22.7)	9 ( 7.6)	8 ( 9.8)
	꽤 만족함	41 ( 54.7)	29 ( 24.6)	12 ( 14.6)
	매우 만족함	12 ( 16.0)	9 ( 7.6)	3 ( 1.2)

Table 2. Over-the counter drug use pattern of participant (recent one year)

항목	변수	n (%)
연고 등 외용약 (n = 158)	1회/주	41 (25.9)
	1회/월	37 (23.4)
	1회/3개월	37 (23.4)
	1회/6개월	29 (18.4)
	1회/12개월	9 ( 5.7)
해열감기약 (n = 152)	1회/주	5 ( 3.3)
	1회/월	27 (17.8)
	1회/3개월	40 (26.3)
	1회/6개월	40 (26.3)
	1회/12개월	35 (23.0)
근육통완화약 (n = 77)	1회/주	6 ( 7.8)
	1회/월	14 (18.2)
	1회/3개월	20 (26.0)
	1회/6개월	19 (24.7)
	1회/12개월	17 (22.1)
소화제 (n = 121)	1회/주	4 ( 3.3)
	1회/월	17 (14.0)
	1회/3개월	34 (28.1)
	1회/6개월	35 (28.9)
	1회/12개월	28 (23.1)

이유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10.4% (12명)를 차지하였다. 전문의약품 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의 상품명이나 성분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 (16명)에 그쳤다. 이 결과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참여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식 · 태도 · 행동 수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식 · 태도 · 행동 종합 평균점수는 3.79점(5점 기준)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 태도 · 행동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각 3.85

점, 4.20점, 3.39점으로, 태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행동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의약품 안전사용 지식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문항 2. “약은 정해진 용법(예: 식전, 식후)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로, 평균 점수는 4.03점 이었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1. “약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로, 평균점수는 3.62점이었다. 문항 5. “남은 약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일반 휴지통이나 하수구에 버린다.”의 평균 점수도 3.66점으로, 지식 영역 전체 평균점수에 비해 낮았다. 의약품의 구입-복용-보관-폐기의 전체 사용 단계에서 의약품 구입과 폐기에 대한 참여자의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의약품 안전사용 태도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높

은 문항은 문항 10. “나는 약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예: 변비약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로, 평균 점수는 4.73 점이었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의약품

구입 단계의 태도를 묻는 문항 1. “나는 TV나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약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로, 평균점수는 3.41점이었다. 이는 문항 6. “나는 약을 구입 할 때 약사에게 약의 효과와 부

Table 3. Participants’ response on safe drug us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questionnaire

영역	문항	수준(Mean±SD)
지식	1. 약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3.62±1.09
	2. 약은 정해진 용법(예: 식전, 식후)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4.03±0.95
	3. 약은 정해진 용량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4.02±0.87
	4. 약은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3.96±0.94
	5. 남은 약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일반 휴지통이나 하수구에 버린다.*	3.66±1.22
<b>지식 영역 소개</b>		<b>3.85±0.56</b>
태도	6. 나는 약을 구입 할 때 약사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4±0.89
	7. 나는 TV나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약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41±0.91
	8. 나는 다이어트보조제, 피부 연고, 영양제 등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4.46±0.80
	9. 나는 내가 처방 받아 복용하고 남은 약을 비슷한 증상이 있는 친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9±1.06
	10. 나는 약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예: 변비약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	4.73±0.68
<b>태도 영역 소개</b>		<b>4.20±0.51</b>
행동	11. 나는 약을 구입할 때, 지인(가족이나 친구 등)이 추천해주는 약을 구입한다.*	3.73±1.11
	12. 나는 약을 구입할 때, 특정 약 상품명을 지정하여 구입한다.*	2.87±1.14
	13. 나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사용기한을 확인한다.	3.55±1.27
	14. 나는 의사나 약사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려 한다.	3.42±1.10
	15. 나는 약을 복용한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한다.	3.04±1.15
	16. 나는 약을 보관할 때 약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보관한다.	3.65±1.25
<b>행동 영역 소개</b>		<b>3.39±0.64</b>
<b>지식·태도·행동 총합</b>		<b>3.79±0.44</b>

\* 역으로 계산

작용 등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점수가 4.24점으로 높은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는 미디어 노출에 친근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 안전사용 행동 문항들은 모두 지식·태도·행동 종합 평균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문항 11. “나는 약을 구입할 때, 지인(가족이나 친구 등)이 추천해주는 약을 구입한다.”로, 평균점수는 각 2.8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Jeon, 2009), 상기의 지식 및 태도 결과와 종합

할 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 특히 의약품 구입 단계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문항 15. “나는 약을 복용한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한다.”도 평균점수가 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행동 수준을 보였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간에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지식과 태도 간에는 0.407, 지식과 행동 간에는 0.358, 태도와 행동 간에는 0.339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닌, 태도와 행동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별개의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4.** Participants' response on safe drug us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questionnaire

	지식	태도	행동
지식	1		
태도	0.407*	1	
행동	0.358*	0.339*	1

\*  $p < 0.001$

**Table 5.** Mean difference of participant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scores

구분	n (%)	지식 (Mean±SD)	태도 (Mean±SD)	행동 (Mean±SD)	
성별	남	98	3.98±0.54	4.24±0.56	3.50±0.62
	여	102	3.73±0.56	4.16±0.46	3.28±0.64
	<i>p</i>		0.001	0.087	0.020
학제	중학교	118	3.83±0.55	4.19±0.49	3.45±0.68
	고등학교	82	3.87±0.59	4.21±0.55	3.30±0.57
	<i>p</i>		0.755	0.568	0.060
교육수혜 경험	있음	68	3.93±0.53	4.18±0.47	3.46±0.64
	없음	43	3.82±0.63	4.09±0.65	3.32±0.58
	<i>p</i>		0.359	0.411	0.244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수준을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  $p=0.755$ ,  $p=0.568$ ). 행동 수준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60$ ). 교육수혜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효과가 장기적 또는 지속적이지 못함과, 청소년의 학년 증가에 따라 의약품 교육이 성숙·심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3.98\pm0.54$  vs.  $3.73\pm0.56$ ,  $p=0.001$ )과 행동 수준( $3.50\pm0.62$  vs.  $3.28\pm0.64$ ,  $p=0.020$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4.24\pm0.56$  vs.  $4.16\pm0.46$ ,  $p=0.087$ ). 세부 문항별로는 지식 문항 중 문항 2. “약은 정해진 용법(예: 식전, 식후)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4.24\pm0.91$  vs.  $3.83\pm0.96$ ,  $p=0.001$ ), 문항 3 “약은 정해진 용량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4.16\pm0.80$  vs.  $3.89\pm0.93$ ,  $p=0.031$ )와 문항 5. “남은 약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일반 휴지통이나 하수구에 버린다.”( $3.83\pm1.21$  vs.  $4.14\pm0.78$ ,  $p=0.041$ )에서 남학생의 지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태도를 평가하는 문항 중에서는 문항 6. “나는 약을 구입 할 때 약사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4\pm0.97$  vs.  $4.14\pm0.78$ ,  $p=0.011$ )에서,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 중에서는 문항 15. “나는 약을 복용한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한다.”( $3.25\pm1.16$  vs.  $2.84\pm1.11$ ,  $p=0.011$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Table 6. Preference of participants on drug education topic and method

구분	전체, N (%)	중학생, n (%)	고등학생, n (%)	
선호 주제	가정상비약(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81 (40.5)	43 (36.4)	38 (46.3)
	금연보조제	10 ( 5.0)	7 ( 5.9)	3 ( 3.7)
	다이어트보조제	25 (12.5)	15 (12.7)	10 (12.2)
	상처·흉터치료제	68 (34.0)	42 (35.6)	26 (31.7)
	성장호르몬제	34 (17.0)	20 (16.9)	14 (17.1)
	수면유도/방지제	30 (15.0)	15 (12.7)	15 (18.3)
	여드름치료제	68 (34.0)	37 (31.4)	32 (39.0)
선호 방법	교육자의 현장 강의	97 (48.5)	55 (46.6)	42 (51.2)
	TV 강의 시청	29 (14.5)	16 (13.6)	13 (15.9)
	역할극 등 참여체험	48 (24.0)	31 (26.3)	17 (20.7)
	휴대폰 앱 프로그램	31 (15.5)	16 (13.6)	15 (18.3)



### 3. 참여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요구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선호 주제와 방법에 대한 복수 선택 및 서술 응답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에 대하여 전체 참여자의 40.5%(81명)가 가정상비약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상처·흉터 치료제와 여드름 치료제가 선호되었으며(각 34.0%), 모두 중학생의 선호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방법에 대한 복수 응답에 대하여 전체 참여자의 48.5%(97명)가 교육자의 현장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4.0%(48명)가 역할극 등 참여 체험을 선택하였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동일하게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이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 중고등학생의 의약품 사용 현황과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수준 및 교육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르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200명의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각 92.0%와 57.5%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입학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0%였으며, 교육 수혜 경험이 전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체의 66.0%였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식·태도·행동 종합 평균점수는 3.79점이었다. 지식·태도·행동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태도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4.20점), 행동 영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3.39점). 의약품의 구입-복용-보관-폐기의 전체 사용 단계 측면에서는, 의약품 구입 단계에서의 지식·태도·행동 수준이 다른 사용 단계에 비해 낮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지식·태도·행동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과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주제로는 가정상비약, 상처·흉터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교육자의 현장 강의와 역할극 등 참여체험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동일하게 가장 선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과 태도 및 건강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내용이 의약품의 구입-복용-보관-폐기의 전단계를 포함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내용이 추가·심화되는 형태로 교육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 중고등학생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종합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 구입 단계, 복용 후 관리 단계(이상반응 관리 등)와 폐기 단계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 여부나 학제가 의약품 안전사용의 지식·태도·행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내용의 보완과 학년에 따른 성숙도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 의약품 교육을 다루는 보건 교과서 7종과 공공기관의 교육 교재 2종을 검토한 기존 연구는, 공공기관 교육교재 1종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 교과서와 공공기관 교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며, 교과서와 공공 교재 사이의 교육 내용의 공통점이 없고, 학년 서열에 따른 교육 내용의 심화 경향성이 보이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

다(Kim *et al.*, 2014). 의약품의 안전성은 단순히 복용 단계만이 아니라, 의약품의 구입-복용-보관-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 올바른 행동 습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내용은 의약품 사용의 전 단계에 대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절대적 기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학년에 따라 체계적이고 발전적 방향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약사회 등 기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교재의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므로(MFDS, 2017), 향후 지속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교재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법이 보다 교육대상자의 동기 유발과 교육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수준에 비해 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과 지식-행동 또는 태도-행동 간에 상관도가 약함을 확인하였다. 교육적 상황에서 교육의 성과를 어떤 사람이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학습의 궁극적인 결과를 실연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때(Davis, 2003),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그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조롭고 획일적인 교육활동이 장시간 계속될 경우에 쉽게 흥미를 잃게 되므로,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의 교육방법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기반교육(Outcome Based Education, OBE)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OBE 교육모델에서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what to know)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what to do)와 어떻게 하느냐(how to do)를 강조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을 마칠 때 보여야 하는 최종 성과들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방법을 선택한다(Spady, 1998). 더불어 청소년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동기가 중요하며, 심리적 유대감에 기초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학습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참여학생들은 비디오 시청 등의 일방적 지식 전달보다, 교육자가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거나 또는 실습에 참여하는 등 상호학습의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강의와 체험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U.S. FDA)는 학생들이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관리, 사용, 폐기 등에 대하여 토의가 가능하도록 문서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상호학습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U.S. FDA, 2012).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 경험이 참여자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음은 보건 교과 내에 의약품 교육 부분이 존재하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실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혜 경험이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함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건강 관련 교육은 교육효과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소멸되므로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효과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방법으로 교과를 통한 교육을 1순위로 답하였다(KAADA, 2010). 이처럼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선호되는 정규교과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Healthy People 2020 사업을 통해 학교 보건교육에서 의약품 교육('알코올과 약물 사용') 부분의 시행 학교 비율을 2006년 81.7%에서 2020년까지 9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HHS, 2012). 또한 일본은 1993년부터 국가적으로 5개년 약물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약물교육을 진행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MHLW, 2013). 일환으로 2008년 문부과학성은 의약품 교육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하고, 아동 및 청소년 의약품 교육 10개조와 교육프로그램 지침을 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중학교의 의약품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뒤따라 2013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의 의약품 교육을 한층 발전시킨 바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 중인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참여 중고등학생의 소속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학력, 건강상태, 학교생활, 가치관, 부모님의 음주 습관 또는 약물사용 습관 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점이다(Choi, 2012). 따라서 향후 이들 요인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Yoon, D. (2012, November 12). 대전·충남 학생, 시험때 고(高)카페인음료 남용 [Abuse of high-caffeine drinks during the exam period among students in Chungnam and Daejeon]. *Localnaeil*. Retrieved September 19, 2019, from <https://www.localnaeil.com/News/View/551269>
- Atsbeha, B. W., & Suleyma S. A. (2008). Medica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KAP) among university of Gondar freshman students, north western Ethiopia. *Pharmacologyonline*, 1, 4-12.
- Chung, S. K., Jang, S. O., & Kim, S. C.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different degrees of alcohol abuse among adolescents using CRAFFT.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144-167.
- Choi, J. Y. (2012). *A study on health communication that influences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dru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 Choi, H. S., Hwang, S. H., Ahn, S. Y., Sim, S. H., Choi, B. K., Kong, Y. M., Han, S. J., Hwang, Y. S., Chang, K. W., & Jung, Y. R. (2011).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behavior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4), 533-546.
- Davis, M. H. (2003). Outcome-based education.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30(3), 227-232.
- Jha, N., Bajracharya, O., Shankar, P. R. (2013).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s medicines among school teachers in Lalitpur district, Nepal before and after an educational intervention. *BMC Public Health*, 13, 652.
-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3). *The fourth five-year drug abuse prevention strategy*. Retrieved October 16, 2019, from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_jouhou-11120000-Iyakushokuhinkyoku/4\\_5strategy-e.pdf](https://www.mhlw.go.jp/file/06-Seisaku_jouhou-11120000-Iyakushokuhinkyoku/4_5strategy-e.pdf)
- Jeon, Y. C. (2009). *A study on the risk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of*

- adolescents' drug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 Kim, H. S. (2002). The influence of alcohol drinking and substance abuse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3), 472-485.
- Kim, K. H., Kang, E. J., Park, H. K., Lee, E. K. (2014).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medication education in health textbook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1*(2), 41-53.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10). Teenager awareness survey on narcotics severity. Seoul, Korea: Author.
- Lee, H. K., Kim, S. J., Yoon, S. C., Bong, S. Y., Ahn, H. J., Park, S. Y. (2001). A survey of adolescent substance uses in a small cit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1), 23-36.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9). *Attention and standard of examine textbook for middle,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2007 partial modified notice*.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I) 보건* [A curriculum guide for health education at middle school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2호) [2015 revised curriculum (Public notice No. 2015-72)]. Sejong, Korea: Author.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07). *Development of life cycle-specific education materials about safe medication use*. Seoul, Korea: Author.
- Mulye, T. P., Park, M. J., Nelson, C. D., Adams, S. H., Irwin, C. E. Jr., & Brindis, C. D. (2009). Trends in adolescent and young adults heal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1), 8-24.
- Sim, K. H. (2011). Tips for creating effective health education materials.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12*, 99-103.
- Spady, W. G. (1998). Organizing for results: The basis of authentic restructuring and reform. *Educational Leadership, 46*(2), 4-8.
- The National Work Group on Literacy and Health. (1998). Communicating with patients who have limited literacy skills: Report of the national work group on literacy and health.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46*, 168-176.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2012). *Medicine In My Home*. Retrieved October 16, 2019, <https://www.fda.gov/drugs/understanding-over-counter-medicines/medicines-my-home-mimh>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HHS]. (2012). *Healthy People 2020*. Retrieved October 16, 2019, from <http://www.healthypeople.gov/2020/>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고등학생의 의약품 사용 현황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Knowledge)·태도(Attitude)·행동(Practice) 수준 및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 현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 경험과 교육에 대한 요구,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고등학생들의 최근 1년 이내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복용 경험률은 각 92.0%와 57.5%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입학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0%였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식·태도·행동 종합 평균점수는 3.79점으로 양호하였으나, 행동 영역의 평균점수가 지식, 태도 영역에 비해 낮았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에 지식·태도·행동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내용 확대와 차별화, 성과기반 교육 방법으로의 전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교과 정규화 등 보다 실증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필요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의약품 안전사용 지식, 의약품 안전사용 태도, 의약품 안전사용 행동, 교육요구도, 중고등학생

부록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지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지

본 설문지의 목적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교재의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도와 태도 및 행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부분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도, 태도 및 경험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설문에 응답해주시요. 본 설문지에 게재되어 있는 질문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귀하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다음은 귀하의 의약품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년 내에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여 복용한 약이 있나요?

예     2번 응답 후 응답 진행     아니오     4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진행

2-3. 어떤 종류의 약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나요?

2. 약의 종류		3. 평균 약 복용 빈도	
해열감기약 (예: 타이레놀, 부루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근육통완화약 (예: 안티푸라민, 각종 파스-케토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연고 등 외용약 (예: 여드름치료제, 상처치료제-후시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다이어트 보조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설사약-제산제 (예: 개비스콘, 알마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소화제 (예: 베아제, 가스활명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변비완화약 (예: 둘코락스, 아락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1회 <input type="checkbox"/> 3개월에 1회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회

4. 최근 1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처방받아 복용하였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나요?

예     5, 6번 응답 후 응답 진행     아니오     7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진행

5. 약의 이름(상품명 또는 성분명)은 무엇이었나요?

\_\_\_\_\_  잘 모르겠음

6. 약의 복용 이유(예: 진단명)는 무엇이었나요?

\_\_\_\_\_  잘 모르겠음

❖ 다음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귀하의 지식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약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약은 정해진 용법(예: 식전, 식후)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약은 정해진 용량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약은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나는 약을 구입 할 때 약사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약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나는 TV나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약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나는 다이어트보조제, 피부 연고, 영양제 등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나는 내가 처방 받아 복용하고 남은 약을 비슷한 증상이 있는 친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나는 약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예: 변비약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귀하가 의약품을 사용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놓였을 때 평소 습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나는 약을 구입할 때, 지인(가족이나 친구 등)이 추천해주는 약을 구입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나는 약을 구입할 때, 특정 약 상품명을 지정하여 구입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나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사용기한을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나는 의사나 약사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나는 약을 복용한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나는 약을 보관할 때 약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보관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관련한 귀하의 경험과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학교 입학 후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주제로 하는 교육(수업, 체험학습 등)을 받은 것은 몇 번인가요?

- 1회                      ⇨ 2번 응답 후 진행                       2회                      ⇨ 2번 응답 후 진행  
 3회 이상                  ⇨ 2번 응답 후 진행                       전혀 없음                  ⇨ 4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진행  
 기억나지 않음              ⇨ 4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진행

2.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은 만족스러웠나요?

-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써주세요.



4.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가요?

- 여드름 치료 약품 사용법과 관리
- 다이어트 약품 효과 및 복용
- 성장(호르몬) 약품 복용법과 관리
- 상처, 흉터 치료 약품 사용법 및 관리
- 금연 보조제 효과 및 복용법
- 가정상비약(감기, 몸살, 해열제, 소화제 등) 복용 및 관리
- 수면제, 각성제(수면방지) 사용법과 관리
- 기타(직접 작성): \_\_\_\_\_

5.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가요?

- 교육자의 강의를 현장에서 수강
- 인터넷, TV를 통해 강의를 시청
- 역할극 등 체험학습에 참여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어플을 활용
- 기타(직접 작성): \_\_\_\_\_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 여</span>
생일 (세)	년      월      일      (만      세)
학년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1학년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중학교 2학년</span>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3학년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1학년</span>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2학년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3학년</span> <span style="margin-left: 350px;"><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span>
흡연 경험	<input type="checkbox"/> 현재 흡연 중(거의 매일)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가끔 흡연 중(일주일에 1~2번)</span> <input type="checkbox"/> 과거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하지 않음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경험 없음</span>
음주 경험	<input type="checkbox"/> 현재 음주 중(일주일에 1~2번)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가끔 음주 중(한 달에 1~2번)</span> <input type="checkbox"/> 과거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하지 않음 <span style="margin-left: 150px;"><input type="checkbox"/> 경험 없음</span>

- 감사 합니다 -